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9월 10일(금)
---(윤력 8월 4일)---
Пятница
10 сентября 2021г.
№ 35 (1195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 기념날 시민들의 행진.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9월 1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날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9월의 두 번째 토요일 도시의 날을 기념한다.

올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탄생 139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시행정부는 도시의 날 기념행사 계획을 밝혔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역 중심지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이 명절을 조금은 특별한 방식으로나마 기념하게 된다. 기념행사는 11일 토요일에 펼쳐진다.

주요 행사장은 시공원이며, 행사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는 시상식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가 기념상과 명예시민으로 추서된 사람에게 증서를 수여한다. 이때 시상식은 실시간으로 도시와 시공원의 전광판으로 전송할 예정이며 11시에 시공원 내 웨르흐네에 호수 주변 무대에서 진행된다.

시공원에서는 공연에서부터 공예전시까지 23개의 행사장이 펼쳐지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을 위해 꽃꽂이 활동교실, 스트리트 댄스 경연, 스포츠인들의 실력 과시, 다양한 예술단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도시의 날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을 위한 빛나는 음악 서프라이즈는 러시아의 유명 가수 알렉산드르 파나요토프의 공연이다. 공연은 시공원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저녁에 열릴 예정이다.

주지사, 사할린주 관광 제반시설 구축에 관한 협정에 조인

사할린 정부와 러시아 연방 관광공사 간 상호협정 체결이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마련된 사할린 전시관에서 이뤄졌다.

협정은 '관광과 접대산업'이라는 새로운 국가기획의 '관광 제반시설 개발'연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관광 및 휴양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기획의 실행에 따른 공동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지역 방문객에게 보다 편안한 휴양 여건을 조성하게 하고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휴양시설, 관광 시설, 산행 트래킹 코스,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여러 가지 관광 제반시설 건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사할린주는 해마다 국내 여행지로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독특한 자연과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제반시설이 부족하다. 협정의 일환으로 지역 정부와 함께 제반시설 구축에 따른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우선적 과업은 관광개발의 내용들을 구성하고, 지역 방문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며, 주에 최대한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그 방향과 서비스를 찾는 것이다.

새로운 관광 제반시설을 조성하고, 교통 통신망을 건설하면서도 우리는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할 것이며 투자자 선정 시 지속적인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라고 러시아 연방 관광공사 사장 세르게이 수하노브가 설명했다.

사할린주의 잠재적 투자자들을 위해 5개 관광 및 휴양 클러스터 범위 내에서 제반시설 구축의 기획 실행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고르니 워즈두흐 관광단지 지역에 관광 및 산악 스키 제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휴양 종합시설, 식당, 스키장 리프트 추가, 새로운 스키 코스를 건설할 계획이다.

'부세 호수'에도 관광 및 휴양 클러스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10개의 비경은 사할린 남쪽 유명 관광코스에도 포함돼 있다. 이곳에 주민과 방문객을 상대로 더 편안한 휴양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쿠릴의 이투루프 섬에는 '오리엔탈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으로 제반시설을 구축하고 호텔을 비롯한 트래킹 코스 조성,전망대, 온천 시설 설비, 정박 시설 건설, 스키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네코탄 군도' 관광단지에는 오네코탄, 파라무쉬르, 아들라소바, 솜슈, 하림코탄, 쉬아슈코탄, 립폰키차, 라스슈아 등 8개 북구 쿠릴 열도와 연결돼 있는데 이곳에 호텔과 글램핑장 건설, 생태 탐방로, 온천, 축산 농장, 양식장 건설이 계획돼 있다.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우선적 시설 중 하나가 3성급 호텔 '알리이드' 건설이 있다.

'남쪽 쿠릴' 기획에는 쿠나쉬르 섬과 쉬코탄 섬이 포함돼 있다. 이곳에도 휴양시설을 비롯한 온천 시설과 트래킹 코스 조성 계획이 있는 가운데 이 건설 기획들의 주안점은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생태관광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할린주 정부와 '미르' 결제시스템 협약

사할린주 정부와 미르 결제 시스템이 대학의 캠퍼스 기획들을 개발하고 사할린 주민 카드에 할인 혜택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동방경제포럼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미르' 국립 결제카드시스템의 회장 블라디미르 코를레브가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사할린 주민 카드' 지역 기획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내 고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의 캠퍼스 기획(대학 관련 부속 시설 이용)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사할린 주민 카드는 미르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급된다. 이 기획 실행을 위해 무역회사, 요식업체, 카드 소유자들에게 적립 및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협력자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사할린 주민 카드 기획은 2020년 봄에 시작돼 올 6월부터 발급되었으며 그동안 5만5천 명 이상이 기획에 참여했다. 현재 이 카드 발급 은행은 스베르뱅크, 아시아 태평양 뱅크, 이투루프 뱅크, 가스프롬 뱅크, 로스셀호즈 뱅크 등 5개다.

캠퍼스 기획은 지역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사할린 주민 카드는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기획의 확대로 지역 교육기관을 자유로이 드나들도록 하고, 도서관, 식당, 다른 카드들이 이용하는 일련의 서비스업체들과 연결할 계획이다.

"디지털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해준다. 사할린 주민 카드는 편한 무현금 결제수단이며 필수 의료보험 및 개인 의료보험의 증서와 같고, 모든 국립 의료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기능이 있다. 협약 덕분에 이 카드는 사할린의 대학생과 교수 간 신뢰의 도우미가 될 것이다. 이 카드의 사용 가능처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곧 주민들은 다양한 서류들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모든 정보는 공동 정보시스템 안에 보존되며 그 공동 정보의 열쇠는 바로 사할린 주민 카드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극동 연방관구에서 무현금 카드 결제시스템 개발은 훌륭하며 이에 약 18만 2천 개의 결제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금융 제반시설의 활용을 통해 주민 카드와 같은 새로운 현대적 서비스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주민 카드가 변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할린주 정부와 공동으로 주민들이 이 카드를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카드 이용자들이 더 큰 할인을 이용하도록 기획 협력자들을 확대하려고 한다. 현재 주민 카드는 러시아에서 19개 지역에 존재하고, 캠퍼스 카드는 79 개 행정자치 지역에서 100만 개 이상이 발급되었다."고 블라디미르 코를레브 회장이 덧붙였다.

양측은 미르 주민 카드를 기반으로 한 비금융 서비스를 도입하는 전망도 논의했다.

현재 주민 카드로 고르니 워즈두흐 관광단지 시설 이용자를 위한 스키 패스도 가능하며, 아동용품 매장에서 구매 시 적립도 되고, 국가 서비스 포털에서 과태료 지불 시 수수료가 0%이다.

새고려신문

2021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5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한국 국토정보공사, 사할린 한인 묘 현지 조사 완료

7월 31일 한국 국토정보공사 조사단(팀장 이향복)이 사할린을 방문해 제3차 사할린 한인 묘 현황 파악 사업을 펼쳤다. 2020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되어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 묘지현황 파악에 대한 사업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1년으로 미뤄졌는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묘지 조사 사업은 국토정보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올해 코르사코브, 아니와, 돌린스크, 토마리 지역 공동묘지를 추가로 조사하여 사할린 한인 집단 거주지 인근 무인가 공동묘지에 매장된 한인 묘(추정묘 포함) 현황을 9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국토정보공사 이향복 팀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한인 묘 100기 정도의 한인 묘를 예상하였으나 급변 사업지역 외 추가로 유즈노사할린스크, 네웰스크, 흠스크 지역의 묘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 결과 7개 지역 48묘역 249기(확정묘 235기, 추정묘 14기) 조사를 완료했다고 한다.

KIN(지구촌동포연대)가 2011년부터 묘지 조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공사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하였고 2019년까지 총 묘 1만5천2백90기를 조사했다. 이 팀장은 "그동안 대도시 주변 공동묘지를 조사하다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조사에서 누락된 묘지, 대도시 외곽의 소규모마을, 현재는 마을이 없어진 지역의 마을단위 공동묘지 즉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역을 조사하였다."고 말했다.

파악사업은 2단계로 나뉘었다.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사전 조사가 이뤄졌으며, 8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본격적 세부조사를 하고, 당초 9월 4일부터 한인묘 현황조사 검수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가 되었다.

또한 조사와 동시에 홍보 촬영도 진행했다. 조사원들은 한

인사회계 대표들, 현지 주민, 한인 동포와 만나 사할린한인사, 강제동원, 1945년 한인학살 사건 등에 대해 취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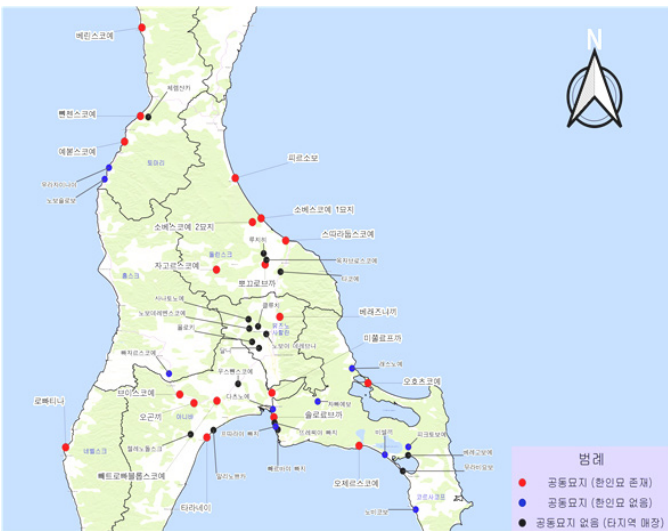
이향복 팀장은 한인 묘지 실제 조사는 사할린 지역 정부, 주한인협회, 주 이산가족협회, 주 노인회, 지방 한인회 등 협력 없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강조하며, 특히 장기간 한인묘지 조사, 강제동원 동포 유골 봉환 사업을 돕고 있는 김흥지 사할린주 한인협회 고문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9월 8일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검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사단을 만날 수 있었다. 단장 이향복 팀장은 현장을 조사하고 숙박실로 돌아와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많은 지역 및 묘소들을 조사하여 그동안 사업에 비해 수적으로는 만족하지 않지만 보다 값진 성공적인 조사 였다고 말하였다.

조사단은 9월 11일 귀국한다.

(배순신 기자)
(사진: 조사단 제공)



이 모 저 모

<섬 - 물고기> 박람회 방문객들을 위해 사할린 수프 300리터 준비

9월 5일(토)에 시 박람회 행사장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에게 요리사들이 준비한 특급 요리와 사할린 수프, 연어알을 곁들인 샌드위치를 대접했다.

8월 내내 도시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물고기-섬' 축제 행사는 미식 축제로 마무리됐다. 바로 '러시아 셰프팀(Chefs Team Russia)' 요리 협동회와 사할린 요리사 팀의 참가로 마련한 요리 활동교실이다.<바다의 선물> 미식 마라톤 행사의 일환으로 도심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시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연어와 가자미, 오징어로 만든 독창적 요리를 맛볼 수 있었으며 요리는 총 1천500인분이 판매되었다. 또한 축제의 전통적인 행사의 하나인 요리 비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요리 경연대회가 열린 가운데 '가정 요리' 경연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6개 팀이 참가해 이들은 각자 가정의 조리법에 따라 송어로 요리를 만들었다.

'러시아 셰프팀' 요리 협동회가 심사하여 '바다의 선물' 미식 마라톤의 가장 축제 요리로 내놓을 만한 요리의 우승자는 하이브 바 (Hive Bar)가 선정되었다.

'가정 요리'경연에서 우승은 '나 크류츠케(낚싯바늘로)'팀이 차지한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타치야나 아니시모와가 두 딸 크세니아, 웨로니카와 함께 생선으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축제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연어알을 곁들인 샌드위치를 대접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때 요리사들은 생선, 미역, 오징어 등이 들어간 사할린 수프를 준비하고, '러시아 셰프팀' 협동회 회장이자 요리사인 니콜라이 사리체브는 '푸른 치즈와 구운 치아바타에 크림소스를 얹은 봉골레'요리를 준비했다.

이번 '물고기-섬' 박람회에서는 총 300리터의 사할린 수프가 마련되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 홍보실이 전했다.

Для гостей ярмарки "Остров-рыба" приготовили 300 литр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супа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на городской ярмарочной площадке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угощали бутербродами с икрой, сахалинским супом и фирменным блюдом от шеф-повара.

На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м праздник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мероприятий фестиваля "Остров-рыба",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ли на различных площадках города почти весь август. Это и мастер-классы с участием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их шеф-поваров и кулинар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Chefs Team Russia. Марафон "Дары морей",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в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ах-участниках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авторские блюда из лосося,

камбалы и кальмаров. Всего было продано более 1500 порций. Еще одно уже традиционное событие фестиваля – конкур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блюд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Семейная кухня" собрала шесть команд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готовили блюда из горбуши по своим семейным рецептам.

Победителем марафона "Дары морей" за самую оригинальную подачу фестивального блюда, по мнени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повар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Chefs Team Russia, признан Hive Bar. В конкурсе "Семейная кухня" победу одержала команда "На крючке". По мнению жюри, Татьяна Анисимова вместе с дочерью Ксенией и Вероникой приготовили самое вкусное блюдо из рыбы. Праздник завершился угощением всех гостей – бутербродами с икрой. А в это время шеф-повара готовили сахалинский суп (в составе рыба, морская капуста, кальмары и т. д.), а шеф-повар, президент сообщества Chefs Team Russia Николай Сарычев – фирменное блюдо – "Вонголе в сливочном соусе с голубым сыром и подпеченной чиабаттой".

Всего на тематической ярмарке "Остров-рыба" приготовили более 300 литр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суп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사할린의 학생들, 공업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9월 11일부터 사할린 국립대학교의 석유·가스 공학 연구소에서 '공업 학교'를 시작한다. 사할린의 9 학년-11학년의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에 수강할 수 있는데 강의는 출석 수업과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하여 지역 어느 곳에서나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접할 수 있게 된다. '공업 학교'의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 교과 과정에 수학, 물리, 지리, 통신정보 과목이 포함되며 마지막에 시험으로 평가한다. 수업은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사할린 국립대 지도교수들이 담당한다.

'공업학교' 특별 교육은 대학과 직접적인 친분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의 직업을 알아보고, 상호작용의 활동이 이뤄지는 대학을 방문해보며, 대학교육과정 속에 자신을 위한 자아실현의 다양한 방향을 발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첫 수업은 9월 11일 15시 (주소: 포그라니츠나야 거리. 2)에 시작된다고 사할린국립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могут поучиться в "Инженерной школе"

С 11 сентября в Техническом нефтегазовом институте СахГУ стартует "Инженерная школа". Слушателя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курсов могут стать учащиес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9-11 классов.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как в очном, так и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этому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встрече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из любого уголка региона.

Программа "Инженерной школы"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модулей: первый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систему учебных занятий по математике, физике, географии и информатике с последующим итоговым тестированием.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по субботам, а вести их будут ведущ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тдельный блок "Инженерной школы" будет посвящен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у знакомству с институтом. Школьники узнают об основах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и, посетят интерактивные занимательные лаборатории, откроют для себя различ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при обучении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Первое занятие пройдет 11 сентября в 15:00 по адресу ул. Пограничная, 2, сообщает СахГУ.

사할린에서 철인 3종 경기 진행

사할린 철인 3종 경기가 사할린주에서 다섯 번째로 열렸다. 고대하던 이번 경기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쿠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에서 선수 200여 명이 참가했고, 일본과 아르헨티나에서 온 참가자도 메달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합류했다. 사할린 철인 3종 경기는 전통적으로 수영, 사이클, 달리기 세 단계로 되어 있다.

다종목 경주 애호가들은 세부적으로 5개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을 시험해볼 수 있다. 즉, '슈퍼 스프린트'(수영 300m, 자전거 경주 8km, 달리기 2km). '스프린트'(수영 750m, 자전거 경주 20km, 달리기 5km). '올림픽'(수영 1500m, 자전거 경주 40km, 달리기 10km). '하프 70.3'(수영 1900m, 자전거 경주 90km, 달리기 21.1km). 근골격계 장애인을 위한 '슈퍼 스프린트'(수영 300m, 자전거 경주 8km, 달리기 2km).

철인 3종 경기는 선수의 굉장한 지구력과 신중한 기술과 정신적 준비성을 요하는 난이도 높은 스포츠 종목이다.

경주의 난이도는 우승자인 예브게니 왈리에브가 4시간 44분 10초 만에 코스를 완주함으로써 확증하고 있다. 자신이 하프 70.3 코스 우승자로서 스포츠적 목표를 향한 방식에 있어 그는 끈기의 표본이다. 왜냐하면 예브게니 선수는 필수적 준비 없이 사할린 최초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고 응급 의료 조치마저도 필요로 했었기 때문이다.

현재 예브게니는 사할린주와 그 경계를 넘어 타지역의 많은 스포츠 경기에도 참가하려고 하고 있다. 그 예로 한 달 후에는 소치에서 열리는 전 러시아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떠난다.

여성 18세 -50세 경기 중 하프 코스 경기의 결과 아르헨티나의 안젤라 솔란쥐가 5시간 25분 5초 기록으로 가장 빠르게 완주했다.

이날 철인 3종 전 코스에 따른 우승자 시상식이 조성되고 스포츠 행사를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행사 주최 측과 협력 측이 예술단의 공연과 다과회를 준비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 부 홍보실이 전했다.

(8면에 계속)

하바롭스크, 일본 전범(전쟁 범죄) 재판은 주제로 국제포럼 개최

9월 6일 - 7일 이틀간 하바롭스크에서 '하바롭스크 재판: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시사' 국제 학술실용 포럼이 열렸다.

학 술 회 에

하바롭스크 변경 주지사 대행 미하일 젤차료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 직속 공공기획부 부장 세르게이 노비코브, 러시아 연방 및 하바롭스크 변경 정부 요원, 지역 및 연방 행정기관과 군 기관의 지도자들, 제2차 세계대전 역사 및 국제관계 전문가 등이 참가하고 한국과 중국 등의 외국 교수와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포럼에서는 국제 안전 확보와 평화유지의 실질적 문제들을 조명했다.

1949년 하바롭스크 재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정세력의 하나로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 일본군의 생화학 무기 실험과 이에 대한 확실한 연구 증거, 러시아 침공 시 생화학 무기 준비 사실들이 제시되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직속 공공기획부 세르게이 노비코브 부장은 하바롭스크 재판은 독일 뉘른베르크 재판과 동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독일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와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의 반인륜적 범죄를 다루었다. 이러한 범죄의 규모는 그들의 치밀하고도 파렴치한 준비의 활동 영역에서 대조된다. 당시 하바롭스크 재판에서 관동군 사령관에게 생화학 무기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물었을 때 그는 전 인류가 파괴될 수 있을 만큼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소련의 적위대는 세계를 구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하바롭스크 재판의 학술적 의의와 고문서 자료의 실제 이용, 그 역사의 법적면 면을 주제로 다뤘다. 포럼의 일환으로 이전에 많은 청중들이 한 번도 쉽게 볼 수 없었던, 러시아 몇몇 기관들이 제공한 고문서들이 전시되었다. 전시회 명칭은 <‘극동의 뉘른베르크’ 하바롭스크 재판의 문서상 연대기>였다.

1949년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연해주 군사지구 군사 재판소의 공개 재판은 생화학 공격에 대한 소련 연방군의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심판이다. 하바롭스크 재판은 공개 방식이었고 그 자료들이 대중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주요 부분은 오늘날까지도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 지난해가 되어 서야 보안국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밀문서 해제에 따른 작업의 일환으로 하바롭스크 재판 자료의 기밀 표시가 제거되었다.



전시회 자료에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중앙 고문서부, 관련 기관으로서 하바롭스크 변경 지역 보안국 및 내부부의 기밀 문서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러시아 연방 외교부 외교정책 고문서 자료 중 비공개 문서가 이용되었으며, 하바롭스크 변경 국립 고문서 사진자료, 하바롭스크 재판 과정이 그려진 그로데코와 하바롭스크 향토박물관의 자료가 전시되었다.

포럼과 전시회는 대통령 장려금 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 사할린 박물관들의 관계자, 사회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한인청년회 이 세르게이 회장과 김 아르쭈 임원은 사할린 한인사, 강제동원 역사, 사할린한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발표했다.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진 올리아 박사는 1945년 8월에 사할린 미주호(포자르스코예 마을), 카미시카(레오니도워)에서 일어난 학살사건(일본인들이 일반 한인들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고 전해졌다.

(본사 기자)

* 하바롭스크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1949년 12월 25일부터 30일에 걸쳐 소비에트 연방 하바롭스크의 장교 회관에서 일본군 전범 피고에 대해 6일간 열렸던 군사 재판이다. 전 일본 관동군이 1925년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고 생체실험 및 생화학 무기 제조 관련으로 기소된 12명의 전 관동군 병사들을 재판했다. 주된 혐의는 1939년의 노몬한 사건, 소련에 대한 전쟁 연습을 행한 1940년의 일본 관동군 특종 연습, 731 부대와 100부대의 생체실험 등이다.

이 재판에서 야마다 오토조 관동군 사령관과 세군무기 제조와 생체실험을 행한 가이즈카 류지 군의 중장, 다카하시 다카야쓰 수의중장, 가와시마 기요시 중장이 각각 25년 강제노동형을 받았고, 나머지 인물들도 2년에서 20년까지의 강제노역형을 받았다. 가벼운 형을 받은 사람은 기한이 되어 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고, 감옥에서 병사하거나 자살한 이를 제외한 이들은 1956년 소비에트 연방과 일본 간의 국교 회복 후에는 감형으로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러시아 검찰은 사건 자료를 확인하고 모든 죄수들의 명예회복을 거부했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에서는 명예회복 거부 의 적법성을 확증했다.

(위키백과 참고)

그의 카메라에 우리 동포들의 얼굴을 담다

길 위의 사진작가 김진석이 만난 고려인들의 삶과 이야기

"이 취재를 통해 '고려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한국에서 김진석 작가의 '고려인, 카레이츠' 사진집이 출판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 3국, 러시아 등 11개 국, 30여 개의 도시에서 만난 고려인, 카레이츠.

이 사진집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현재 삶에 대한 기록이다.

현재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은 대략 80만 명(사할린 동포 포함)으로 추정된다. 1937년 강제이주로 러시아 본토와 중앙아시아로 흩어진 고려인을 합친 숫자다. 현재 5세대까지 이르렀다. 김진석 작가는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 3국, 러시아 등 11개 국, 30여 개의 도시에서 4000여 명에 가까운 고려인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의 앵글에 동포의 삶과 얼굴을 담았다.

지난 2016년 3개월여의 기간동안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작업을 진행했다. 그 기간 80년의 시간을 거꾸로 흘러보내듯 고려인 한 명 한 명의 지금의 삶을 기록했다. 그 결과로 카자흐스탄 국립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카자흐스탄전에 일부 사진이 소개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여러 곳에 살고 있는 고려인을 취재하게 되었다.

14개월간의 기간, 11개 국가 20여 개의 도시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취재. 약 4천여 명의 고려인. 20여만 장의 사진및 기타 영상을 남겼다.

'길 위의 사진가' 김진석 작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벨라루스까지 고려인의 이동경로를 뚜벅뚜벅 따라서 오로지 조선의 후손인 고려인들의 일상을 멀지 않은 거리에서 카메라에 담아냈다. 김 작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후손들이 만든 언론사의 기자, 선조들이 만든 무용단의 단장과 단원, 가수, 배우, 합창단원, 시장상인, 30~40대 사업가, 광고기획사 직원, 연예기획사 대표, 패션모델, 대학교수, 장교, 건축가, 정치인은 물론 초등학교생에 이르기까지, 고려인의 얼굴과 삶을 담아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분명, 고려인은 우리의 빈약했던, 그래서 매우 서럽던 시절, 우리 민족의 식민과 저항, 절망과 강제이주, 탄압과 생존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상징한다.

이 책에는 수많은 얼굴이 등장한다. 과거의 어둠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고려인 1세대, 구전된 기억을 공유하고자 하는 2세대,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당당히 살아내는 오늘날의 고려인들까지, 김 작가는 이들의 활짝 핀 웃음과 어두운 기록, 선명한 햇살과 흑백의 그림자들을 대비시킨다. **(출판사편에서)**

이러한 취지로 사할린을 두 번이나 다녀간 김진석 사진작가는 «우리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에 살고 있는 корейцы(고려인, 한인)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웠거나 그 독립투사들을 후원했고, 또 사할린 한인과 같이 제국주의에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국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유라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 핏줄 한 형제에게 그 감사함과 더불어 위로의 마음을 이 책에 담으려 했습니다. 조국은 우리 동포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그 한 걸음을 떼 것 같습니다.»고 책을 펴낸 소감을 밝히고 새고려신문 지상을 통해 그는 '아직 못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면 책과 카메라 들고 제일 먼저 달려갈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사할린동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 지은이 김진석

1974년 전북 고창 출생. 월간지 《말》 사진기자로 시작해 <여의도 통신> 편집장을 지냈다.

2008년 제주 올레 공식 사진작가로 활동을 시작. 이후 아프리카, 스페인 카미노, 스위스 몽블랑, 네팔 히말라야 등의 작업물로 '길 위의 사진작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문재인 대통령 전속 사진을 담당했으며, 이후 중앙아시아, 동유럽, 러시아의 우리 동포(고려인) 취재를 하고 있다.

2017년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에서 '고려인 전시', 201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서울과 부다페스트의 두 도시 이야기' 등의 전시회를 열었으며, 저서로는 《걷다 보면》, 《라비 드 파리》 등 11권이 있다.

◆ 본문 중에서

사할린 남부의 항구도시 코르사코프. 코르사코프 한인 회장 이태준 씨(70)가 사할린의 '망향의 탑' 앞에 섰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8일 사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 코르사코프에 도착했다. 일제는 자기 국민들만 배에 태우고는 출항량을 쳤다. 그 후 사할린에는 소련군이 들어왔다. 코르사코프의 한인들은 고국에서 배를 기다렸다. 하지만 배는 오지 않았다. 기다림에 지친 한인들은 코르사코프를 떠나 사할린의 주요 도시로 돌아간다. 언덕에 올라 배를 기다리던 곳에 망향의 탑이 세워졌다. 현재 코르사코프에는 2300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_277쪽

이 취재를 통해 '고려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재외동포법에 근거해서 법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이들은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일부입니다. 즉 우리의 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려인'을 보는 실제적 관심은 다릅니다. 과거만 존재할 뿐 현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정보 부족이 '고려인'을 우리와 다르다고 규정하고 스스로 차별하는 현실을 초래했습니다.

_292쪽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зван город, который может стать глобальным центром робототехники

Тэгу, 5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Город Тэгу избран будущим хабом робототехники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ило 30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для расходования в 2023-2029 годах на робототехнику, включая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 данных и испыта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и (US\$1=W1,170).

Поставлена цель продвижения нового рынка робототехники за счет созда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индустрии роботов.

Город Тэгу выбран поскольку он уже реализовал несколько проектов по развитию робототехники, выделив для этих целей здания и промышленные зоны для испытаний роботов, беспилот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и экспериментов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Город надеется стать лидером в глобальной робототехнике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для роботов, создав свыше 10 00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к 2030 году.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на Чхусок обойдется корейцам в 260 долларов

В этом году на подготовку праздничного стола по случаю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корейцы потратят в среднем 300 тыс. вон или 260 долларов. Такими стали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ного Ассоциацией организаций по правам потребителей относительно 88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ов и крупных супермаркетов в 25 столичных округах. В частности, был проведен сбор данных о стоимости 24 наименований продуктов, используемых при накрытии праздничного стола и проведении поминальных церемоний.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на 9,3% выше прошлогоднего. Такой рост объясняется увеличением стоимости 22 из 24 вышеуказанных товаров. Например, хурма подорожала на 39,6%, яйца на 36,9%. Покупка продуктов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ах обойдется потребителю в 200 долларов, а в больших супермаркетах – 266 долларов. Анализ проводился из расчета на семью из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В Хабаровске состоялся форум, посвященный процессу над японскими военными преступниками

ХАБАРОВСКИЙ ПРОЦЕСС

ХАБАРОВСКИЙ ПРОЦЕСС
МЕЖДУНАРОДНОЕ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Е СОБРАНИЕ

6-7 сентября в Хабаровске состоя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й форум «Хабаровский процесс: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и современные вызовы».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ряд извест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научных деятелей –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Михаил Дегтярев,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ектам Сергей Новиков, чл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руковод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рганов во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орган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етерански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едущие специалисты в области истори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были ученые 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итая.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чают, что форум имеет значение для всех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поскольку на нем освещаются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сохранения мира и обеспеч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Хабаровский процесс 1949 года поставил точку в осуждении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как одной из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развязавших Вторую мировую войну в АТР. В ходе него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оспорим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разработки и испытания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факты ее подготовки

▼ Хабаровский процесс состоялся 25-30 декабря 1949 года. Его проведение было выражением принципиальной позиц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о факту разработки и применения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 СССР имел неопровержим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показания командующего Квантунской армии Отодзо Ямады, о подготовке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ой войны и о сосредоточении к 1945 году в Маньчжурии вблизи советской границы огром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способного уничтожить все население планеты. Поэтому совет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не могло согласиться с политикой заигрывания и сокрытия преступлений против человечности, которую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водили СШ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военном трибунале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более известном как Токийский трибунал.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ША убежища разработчикам и руководителям смертоносных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их отрядов несло объективную угрозу человечеству.

▼ Хабаровский процесс стал первым и важнейшим шагом на пути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слевоенного мира.



к нападению на нашу страну.

Форум прошел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ках, вызвал широкий резонанс.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приняли и сахалинцы, в том числе музейные работн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МООСК Ли Сергей и Ким Арт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дном из пленарных заседаний, где рассказали о трагической судьб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 Спецзакоме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ринято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была открыта выставка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нескольких российских ведомств, которые никогда ранее не были доступны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Она получила назва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Нюрнберг".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летопись Хабаровского процесса».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газеты будет дан обзор некоторых докладов, которые имеют отношение к проблемам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приближается к России

Сеул, 6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Фестиваль «hallyu» или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с участием поп групп, таких как Pentagon и Monsta X, открывается онлайн на этой неделе.

Фестиваль,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и фондом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ультурным обменам Кореи, продлится с 6 сентября по 14 ноября, предлагая разнообразный контент поклонникам корейской поп культуры.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выбрали три «страны внимания» – Россию, Индию и Индонезию –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с этими странами.

В первую неделю фестиваль сфокусируется на России и организует программы, в которых поп группы, такие как The Boyz, Lovelyz и CIX представят

тенденции и обычаи Кореи, соблюдаемые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выпадает на 20-22 сентября.

12 сентября,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недели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ух стран смогут встретиться онлайн и поделиться идеями о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Неделя Индии пройдет 4-10 октября с участием поп звезд Monsta X, Pentagon и AB6IX.

8-14 ноября пройдет неделя Индонезии с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поп групп A.C.E. и Dreamcatcher.

Фестиваль будет доступен по адресу tokkojikorea.com. Детали программ публикуются на сайт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а также на языках трех стран-участниц.

«Возвращение домой через 70 лет» – выставка произведений художника Ли Чжун Сопа

12 картин изве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Ли Чжун Сопа, которые были подарены государству семьей покой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Самсунг» Ли Гон Хи, впервые за 70 лет представлены широкой публике. Выставк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Возвращение домой через 70 лет» открылась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города Согвиго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куда художник приехал со своей семьей в январе 1951 год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осетители привлекает картин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Пейзаж с островом Сопсом», написанная на Чечжудо. Художник не стал иллюстрировать ужасы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свидетелем которых он был, изобразив вместо этого пейзаж небольшой тихой деревушки.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посетители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сравнить картину с реальным пейзажем острова Сопсом, выглянув в окно выставочного зала. По словам куратора музея Чон Ын Чжа, произведения художника, связанные с островом Чечжудо и городом Согвиго, позволят публике лучше открыть для себя творчество и биографию Ли Чжун Сопа. К 2024 году в музее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залы, в которых будут экспонироваться работы художника. Выставка «Возвращение домой через 70 лет»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6 марта будущего года. Судьбу художника нельзя назвать легкой или удачной. Родившись в семье крупного землевладельца, он рано остался без отца и вынужден был вместе с семьей переехать к родителям матери. Живописью он заинтересовался еще в школьном возрасте, а во время обучения в Академии культуры в Японии познакомился со своей будущей женой – японкой Ямамото Масако, которая позже последовала за ним в Корею и родила двух сыновей. Но семейное счастье Ли Чжун Сопа длилось недолго: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разделила супругов и больше не соединила. Ли Чжун Соп очень тосковал по уехавшим в Японию жене и детям, и это чувство отразилось в последних картинах художника. В 1956 году он скончался в абсолютном одиночестве в возрасте 40 лет. Супруга художника, которой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илось 100 лет, прислала из Японии приветственное послание организаторам и гостям выставки.

KBS World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будут сотрудничать со Сбером и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в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ах

На полях VI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кционерным обществом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и Публичным акционерным обществом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Документом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участие сторон в реализации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снижению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на островах создадут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поддержк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обращения углеродных единиц, внедрения технолог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окращение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2025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достичь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ешает задачу по сокращению вредных выбросов в атмосферу, которую постав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А для этого требуется коренным образом реформировать многие отрасли экономик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еобходимо энергетику и транспорт,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сжигают ископаемое топливо, перевести на более безопасные для природы энергоносители. А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ы объединенные усил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крупных финансовых учреждений. Вместе мы достигнем успех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и Сбер намерены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в вопросах развития кредитования и банков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эксперимента, в том числе —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субъектов ДФО механизмов господдержки. Стороны планируют совместную реализацию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а такж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развит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выполнять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дво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олее комплексно

Помимо ликвидации дефектов асфальта н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ремонт и покраску детских площадок, лавочек, заборов, подъездов и фасадов зданий. Новые правила начнут действовать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Такое решение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озвучил в ход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бъез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месте с мэром Сергеем Надсадным посетил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е дворы на улицах Амурская и Дзержин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 поинтересовался у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мнением о качестве выполнения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 Выполнили все, что мы просили — вопросов даже нет. Мы довольны. Сделано очень много. На некоторых участках была очень большая проблема с асфальтом, а теперь все хорошо, — отметил южно-сахалинец Анатолий Левенков.

В ходе осмотр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неухаженный фасад одного из домов, поломанную лавочку и неопрятные заборы. По мн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такие недочеты нужно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устранять в рамках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 В этом году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очень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ямочному ремонту во дворах — он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 мере поступления обращений. Однако это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В одном случае на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необходим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покосившийся забор палисадника, в другом — починить качели и покрасить лавочку. Работать следует точно, прислушиваясь к людям. Ведь даже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й двор нуждается в обслуживани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Это потребует от структур некоторых организационных решений. Внесем корректировки и будем комплексно подходить к этой работе. У нас есть график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асфальтового покрытия, элементов детских площадок. Теперь при текущем ремонте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будем выполнять эти работы одновременно,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Надсадный.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был выполнен более чем в 330 двор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это треть всех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города. Всего на островах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661 двор.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списков для ремонта оказывают волонтеры, общественники 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яют свои обращения на портал «Сахалин.Онлайн». В работу берут дворы, в которых покрытие разбито не более, чем на 30 процентов. В остальных случаях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ставят в очередь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К примеру, сейчас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развернуты на Емельянова, 336.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у, что работы здесь завершены почти на 80 процентов — специалисты готовы приступить к укладке асфальтового покрытия, устраивают сквер. Также во дворе появятся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Полностью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будет выполнен в октябре.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губернатор поддержал предлож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должить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дво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до наступления холодов. Его главе региона озвуч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в ходе осмотр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Юрий Трутне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города должны стать комфортными

Одним из направлений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танет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Работа начнется с региональных столиц и крупны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ородов. Об этом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подведению итогов VI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сообщ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Мы представили Президенту и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целый ряд инструментов, в том числе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варталы»,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снижения цен, увелич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жиль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программу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на врачей и учителей. Такой механизм ка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концессия» позволит продолжить поддержк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круп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 сообщил он.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и будут вовлекаться в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евозможно проводить реновацию городов без позиции их жителей. Главам регионов, мэрам требуется организовать эту работу. Жители должн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концепции реновации Владивостока, Хабаров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других городов. Мастер-планы должны сверяться с мнение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и подтверждаться источникам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Об этом говорил на Форуме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Только тогда это будет собранный план», — считает Юрий Трутнев.

Как уточнил вице-премьер, реновация городов связана не только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жилья и созданием новых городских кварталов, а это качественное изменение город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е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ых задач, формирование рекреационных зон.

Напомним, VI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прошёл 2-4 сентябр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Форум собрал более 4000 участник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МИ из 58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Самы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делегации был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Японии, Индии, Китая, Казахстана, СШ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На Форуме подписано 380 соглашений на сумму 3,6 трлн рублей (учтены соглашения, сумма которых не является коммерческой тайно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т развивать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для людей

В рамках этой работы на полях VI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между област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фондом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ДФВТ).

—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ы в пилотном режиме опробов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зличные цифровые программы, делающие жизнь горожан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О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ети в сфера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до системы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Пришло время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этот позитивный опыт на всю территорию региона, чтобы цифровые услуги стали доступны не только населению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о и самых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Белик.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ходится в числе лидеров страны по показателям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по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задачу, сделать жизнь населения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Например, в медицине созданы единые хранилища результатов обследований в цифровом формате. Школьникам и педагогам обеспечен доступ к цифровому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у контенту. Применение технологий видеоаналитики позволяет следить за качеством содержания дорог. А система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неоднократно доказала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и поисках пропавших детей.

—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же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сред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по уровню цифровизации отдель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 социальных сферах.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к цифровизации позволит быстро достичь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эффекта, как для сферы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так и окажет заметный эффект на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это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безопасности, улуч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туации, перевод в «цифру» базовых услуг для населения,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онда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Руслан Саркисов.

Соглашение предполагает комплексную цифровизацию сфе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ЖКХ, транспор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атом» и «Газпром» развива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Соглаше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е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альнейше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подписано на острове Русском в ходе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Документ своими подписями скрепи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 директор блока по развитию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бизнесу Госкорпора-

ции «Росатом» Кирилл Комаров 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Виталий Маркелов.

—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развивалась чистая энергетика, которая не наносит ущерба природе и здоровью людей. Для нас также важно созд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крупное экспорт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одорода, внедрить технолог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ового вида топлива в различных секторах экономики. Это позволит сформировать уникальную специализацию и компетенцию региона на перспективном глобальном водородном рынке. В итоге в регионе фактически появится нова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ая отрасль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ая на годы вперед обеспечит работой многи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оро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глашением намерены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водорода из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 метана, поставок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нового вида топлива, а также в создании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системы поставок продукции на внешние рынки и потребителя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 Росатом ориентирован на развитие низкоугле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становлении рынка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России. Применение водорода в таких секторах, как транспорт,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позволит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тить вредные выбросы в атмосферу и перейти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е методы производства. Убеден, участие «Газпрома» и всесторонн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зволят нам уже в обозримой перспективе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ть этот амбициозный проект, — заявил Кирилл Комаров,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 директор Блока по развитию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бизнесу Госкорпорации «Росатом».

К 2025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лжна стать углеродно-нейтральным регионом. Одна из основных мер — перевод части энергетики и транспорта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безопасного дл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одорода, а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етропарков. Развитие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Ф до 2035 год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обивается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овой сахалинской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предложением губернатор обратился к Президенту РФ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на встрече с модераторами сессий VI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а с учас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месте с командой Марата Хуснуллина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разработало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ризнанного таковым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Ее реализация уже начата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в эт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построили 9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рограмму нужно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нимать как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Обращаемся к вам с просьбой предусмотреть начало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уже в 2021 го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ребуется 4,6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Это очень важный вопрос. Очень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наше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 подчеркну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 новой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в 2021-2026 годах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почти 29 тысяч человек. Ускоренными темпами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селить более 64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Фотограф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риглашают к участию в V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Русская цивилизация»

О старте мероприятия сообщило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ФАДН). Участвовать в нем могут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фотографы, так и любител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ья. Для этого им необходимо загрузить авторские снимки на сайт www.rucivilization.ru.

Все конкурсанты должны быть старше 18 лет. Каждый из них может представить до 5 фотографий, созданных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в номинациях: «Уникальная природа», «Лица и поколения», «Традиции большой страны», «Архитектура и скульптура»,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Москва», где будет отражено ярк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культур и традиций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ием работ завершится 5 октября 2021 года. Затем их будет оценивать жюри,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ФАДН России вошли известные в стране и мир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фотографы, художники, журналисты,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состоится в Москве. Как и прежде, лучшие работы можно будет увидеть на улицах столицы, в парках и галереях.

Отметим, в 2020 году участниками фотоконкурса стали более 5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з 74 стран мира, которые прислали почти 20 тысяч фоторабот.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미래 동포사회 이끌어갈 글로벌 한인 차세대 리더들 한자리에 모이다

9월 7일부터 10일까지 27개국 136명의 한인 차세대 주역들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온·오프라인으로 참가

전 세계 27개국 136명의 글로벌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세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장인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7일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개막했다.

- 주최 : 재외동포재단

개회식은 김성곤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축사 영상, 영 김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기조 강연, 대회의 의미를 담은 주제 영상 및 제주어로 노래하는 제라진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한인 차세대, 세계를 위해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3박 4일 동안 열리며, 세계 시민으로서 한인 차세대의 역할을 모색하고, 차세대 인재발굴과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모국 대한민국과 젊음이라는 공통분모로 한데 모인 한인 차세대들이 우리 재외동포 사회



의 밝은 미래"라며 "차세대 동포들이 주축이 되어 마음껏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분야별 한인 네트워크 체계화 및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영 김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From a Korean-

American Immigrant to the Halls of Congress'를 주제로 한인 여성 최초로 미국 연방 의회에 진출한 경험과 노하우를 이야기했다.

올해는 최초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며, 지역회의와 FLC 문화콘서트, FLC 홍익포럼, 국무총리와 함께하는 세계한인차세

대대회 화상간담회 외에도 참가자들 간의 활발한 언택트 네트워킹을 위해 온라인 네트워킹 라운지, FLC 시네마, FLC 아카이브 등의 상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FLC : Future Leaders Conference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여러분들은 거주국 내에서의 리더이자 동시에 전 세계 한민족 공동의 리더이기도 하다. 홍익인간 정신으로 한민족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동참해 주시고,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민족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일에도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재외동포재단, 입양동포단체와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화상 간담회 개최

9월 6일, 지역별로 2차례 나누어 화상간담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입양동포사회 주요 현안 및 재단의 입양동포 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 청취 등을 위한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행사를 입양동포단체장들과 9월 6일(월) 개최했다.

입양동포단체 '찾아가는 동포재단' 행사는 지역별 시차를 감안하여 2차례 개최하였으며, 총 8개국, 19개 단체, 22명의 입양동포단체장이 참석했다.

입양동포단체장들은 지역별 입양동포사회 현안 등을 공유하고,

재단의 입양동포사업 추진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현지 입양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성곤 이사장은, "750만 재외동포와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잇는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입양동포와 자녀들을 우리 동포로서 적극 포용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고 하면서, "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입양동포 여러분들이 모국을 더 잘 이해하기를 바라며, 입양동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말로 깨닫다]

숲을 걷고 나서

숲을 걷고 나서 숲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풀이 보입니다. 눈을 조금 들면 나뭇가지가 보이고 그 끝으로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그런 모습이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숲을 걷고 나서 길이 보입니다. 흙이 보입니다. 바위도 보이고 자갈도 보입니다. 정성껏 쌓아놓은 돌담도 보이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는 돌담이 참 많습니다.

걸으며 돌담을 보면 온기가 느껴지고, 저도 돌 하나를 올려놓곤 합니다.

숲을 걷고 나서 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꽃이 천지네요. 바람꽃도 마타리도 배웁니다. 모르는 꽃이 많아 반갑습니다. 나무도 배웁니다.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자작나무 등등 숲은 그대로 나무의 집입니다. 그 깊은 초대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나무가 떨어진 또는 떨어뜨린 나뭇잎은 길을 덮고, 흙보다 더 흙같은 모습으로 길을 보여줍니다.

숲길을 걷고 나서 새를 만나고, 곤충을 만납니다. 새는 소리입니다. 모습보다 소리가 먼저 나를 지킵니다. 휘파람으로 따라해 봅니다만, 새가 웃겠네요. 어설픈 모방이나 새를 닮으려 애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겠지요. 곤충은 때로 적응이 안 됩니다. 잠자리나 메뚜기나 방아깨비 등 익숙한 모습도 있지만 낯설거나 여전히 피하고 싶은 곤충도 많습니다. 길을 따라오면서 눈앞을 뱅뱅거리는 '눈에놀이'나 길을 막고 선 거미는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숲길을 걸으니 뜻밖에도 사람이 보입니다. 먼저 길을 걸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길은 한 사람의 뒤를 다룬 한 사람이 이어갔기에 길이 되었을 겁니다. 쌓아놓은 돌담도, 나무에 묶인 리본도 길을 보여줍니다. 발자국이 발자국을 덮습니다. 앉아서 곤한 다리를 쉬었을 평평한 바위도 만납니다. 분명 내가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웬지 먼저 길을 걸었던 사람이 고맙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나처럼 걸었을 겁니다.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 옆을 봅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함께 숲길을 걷습니다. 새로운 숲을 만나고 새로운 하루를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내와 걷는 하루는 왜 아내가 반려자이고 동반자인지 알게 합니다. 반려자(伴侶者)라는 말은 짝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伴)도 려(侶)도 짝이라는 뜻입니다. 반이라는 글자가 예쁘네요. 나의 반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의 반이 되어야겠지요. 동반자(同伴者)의 반도 같은 글자입니다. 어떤 일을 함께하는 나의 나머지 반이 동반자인 셈입니다.

반은 도반(道伴)이라는 말에도 쓰입니다. 도반은 함께 도를 닦는 벗이라는 의미이지만, 저에게는 함께 길을 걷는 짝이라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함께 걷는 벗이 있음은 고마운 일입니다. 같이 걷는 이가 모두 도반입니다. 도를 닦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도(道)가 길의 의미라는 점을 잊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보면 산에 사는 사람이 선인(仙人)입니다. 산을 걷고 숲을 걸으면 선인이 됩니다. 도를 깨닫게 됩니다. 도가 엄청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연에서 배웁니다. 숲에서 배웁니다. 숲길에서 깊이 느낍니다.

오늘도 나를 치유하는 숲길을 걷습니다. 위로와 희망의 숲길을 걷습니다. 걷기가 올곧게 위로입니다. 깨달음의 숲길입니다.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스스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한참 숲길을 걷고 나니 숲 밖의 세상도 보입니다. 사람도 보입니다. 숲길을 걸으니 앞이 보입니다. 길은 여러 모습으로 내 앞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기에 한 걸음을 더 옮깁니다. 앞으로 말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웅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Особый налоговый режим на Курилах станет стимулом для экономики и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Такое заявление сдел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омментируя решение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 введении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го налогового режима для бизнеса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бъявил о грядущих льготах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Бизнес, работающий на отдаленных островах, освобождает от налогов на прибыль, имущество, на землю на десять лет. Также будут снижены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 Надеемся, что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на Курилах принесет весомые результаты для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ов, для запуска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роектов, прежде всего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туризм, марикультура и переработка рыбы, – 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 Реш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еще раз подтвердило, что Россия развивается в направлени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 Курилы станут драйвером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все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оздание особого налогового режима станет мощным стимулом для бизнеса в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й сфере,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е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туризме, сфере ИТ-технологий. Все эти отрасли можно назвать зелеными. Э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так как именн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сия начинает климати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по переводу экономики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безопасных для природы технологий. Это еще одно направление наше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которое поддержал Президент. Глав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решений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танет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особенно на отдаленны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ахалине отреставрировали барельеф Юрия Гагарина

Найденной на невельском побережье скульптур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ернули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облик.

После реставрации барельефу нужно время, чтобы материалы,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в работе, полностью просохли. Через полторы недели скульптуру покроют специальным за-

щитным составом и установят на постамент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Объект станет экспонатом местного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 Барельеф был расположен на стеле, которую, к сожалению, восстановить не удалось. Сейчас в проработке находятся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постаментов – выбор будет сделан с учетом мнения жителей Невельска. Важно, что восстановили не только барельеф, но и историческую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 теперь этот важный скульптурный объект вновь станет украшением города,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в СМИ появились фотографии барельефа, выброшенного на берегу моря. Раньше он располагался на въезде в Невельск.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требовал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отреставрировать барельеф Юрия Гагарина и разместить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 1 августа по 10 декабря 2021 года Свердловское областное отделен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и Ура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оводят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творческих работ «Открываем Россию заново. Всей семьей!».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конкурса является повышение интереса к семейным путешествиям, а также акцентирование внимания на у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и доступности путешествий по России, позволяющих учесть интересы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при знакомстве с уникальной и разнообразной природой, богатой культурой, славной историей и современны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регионов нашей страны.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принять граждане РФ без возраст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с творческими работами, рассказывающими о семейных путешествиях по регионам страны в следующих номинациях: фотографии, эссе, мультимедийные презентации, видеоролик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а сайте - <https://rgofest.ru/>.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триатлон

Триатлон Ironsakh прошел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ятый раз. Долгожданное событие собрало порядка 2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урильска, Владивостока, Хабаровска и Комсомольска-на-Амуре. К борьбе за медали такж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участники из Японии и Аргентины.

Сахалинский триатлон традиционно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три этапа – плавательный, велогонный и беговой. Испытать себя любители мультиспортивной гонки могли на одной из пяти дистанций: "суперспринт" (плавание – 300 м, велогонка – 8 км, бег – 2 км), "спринт" (плавание – 750 м, велогонка – 20 км, бег – 5 км), "олимпийская" (плавание – 1500 м, велогонка – 40 км, бег – 10 км), half 70.3 (плавание – 1900 м, велогонка – 90 км, бег – 21.1 км) и "суперспринт" для лиц с ПОДА 근육격계 장애인 (плавание – 300 м, велогонка – 8 км, бег – 2 км).

Триатлон – это сложный вид спорта, требующий от атлета огромной выносливости, продуманной техники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Сложность прохождения гонки подтверждает и победитель Евгений Валиев, преодолевший дистанцию за 4 часа 44 минуты и 10 секунд.

Лидер на дистанции half являет собой пример упорства на пути к спортивным целям, ведь в самом первом сахалинском триатлоне Евгений участвовал без долж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ему даже понадобилась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Сегодня Евгений старается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многи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как на острове, так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например, через месяц он отправится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Сочи.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дистанцию half среди женщин 18-50 лет быстрее всех преодолела спортсменка из Аргентины Энджела Соландж (05:25:05).

Состоялось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всех дистанций. Для гостей спорти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организаторы и партнеры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готовили творческие выступления и угощен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자기를 발휘하라' 예술축제에 사할린 청년들의 참가 기대

청년주도센터가 제 11회 '자기를 발휘하라' 예술축제의 보컬 부문에서 참가신청 시작을 홍보하고 있다. 보컬 예술축제에는 연령 14세 - 35세까지 가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데

신청서 접수는 '유명 작곡가의 노래'와 '자작곡 노래' 2개 부문에서 진행되며, 각 신청서들은 '아마추어'와 '전문' 두 영역으로 나뉜다.

이번 예술축제 참가자들에게는 특별한 상들이 준비돼 있는 가운데 각 부문에서 전문가 영역의 우승자에게는 '솔로와 모노' 녹음 스튜디오에서 음반 제작의 기회가 주어진다. 보컬 경연에는 솔로와 그룹 참가가 가능하며 단,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참가 그룹의 절반 이상이 14세 - 35세 연령대여야 한다.

신청서는 10월 4일까지 접수하며, 10월 6일에 이를 검토

한 후 '로지나' 시문화회관 무대에서 예선전이 펼쳐진다.

10월 16일에는 '옥차브리' 영화 상영관 무대에서 '자기를 발휘하라' 예술축제의 결승전인 노래 대전이 열린다고 청년주도센터가 전했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арт-фестивале "Заяви о себе"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объявляет старт заявочной кампании 11 арт-фестиваля "Заяви о себе" в направлении "Вок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В нём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калисты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5 лет.

Приём заявок ведётся в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Исполнители песен известных авторов" и "Исполнители песен собственного сочинения". В каждой из них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в двух категориях: "Любител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Для конкурсантов арт-фестиваля подготовили особенные призы. Победители в категори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 кажд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исать трек в студии звукозаписи "Solo&Mono".

В творческом состязании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как сольные исполнители, так и коллективы. Главное условие – чтобы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коллектива участников проходила по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от 14 до 35 лет.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4 октября. После их рассмотрения 6 октября на сцене городск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состоится отборочный тур. 16 октября на сцене кино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Октябрь" состоится главная "битва вокалистов" – финал арт-фестиваля "Заяви о себе",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сак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